



numbers  
EXCLUSIVE vol. 276

한국교회 여교역자의 현실

## 여성 목회자 39%, '목회자 된 것 후회한 적 있어!'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응급실 자해·자살 시도자 실태
- ② 한국인의 온라인 댓글 인식
- ③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대한 인식

2025. 2. 25.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 여성 목회자 39%, ‘목회자 된 것 후회한 적 있어’!

1955년,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한국교회 최초로 여성 목사 안수를 시행했으며, 1974년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장로교단 중 처음으로 여성 목회자에게 안수를 허용했다. 최초의 여성 목사 안수 이후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단 내 여성 목회자의 비중과 영향력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전국의 목회자 대상으로 한국교회 내 여성 목회자의 위상과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를 실시했는데 남녀 그리고 직분별 인식 차이를 비교하였다.

주목할 만한 결과로는, 목회자 10명 중 8명(80%)이 ‘한국교회 내 여성 차별이 존재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는데, 여성 목회자의 동의율은 94%로 남성 목회자(75%)보다 크게 높았다. 또한 여성 목회자 10명 중 4명(39%)이 목회자가 된 것을 후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반적으로 여성 목회자가 체감하는 차별 정도는 남성 목회자가 인식하는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했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목회자의 여교역자 인식과 실태

###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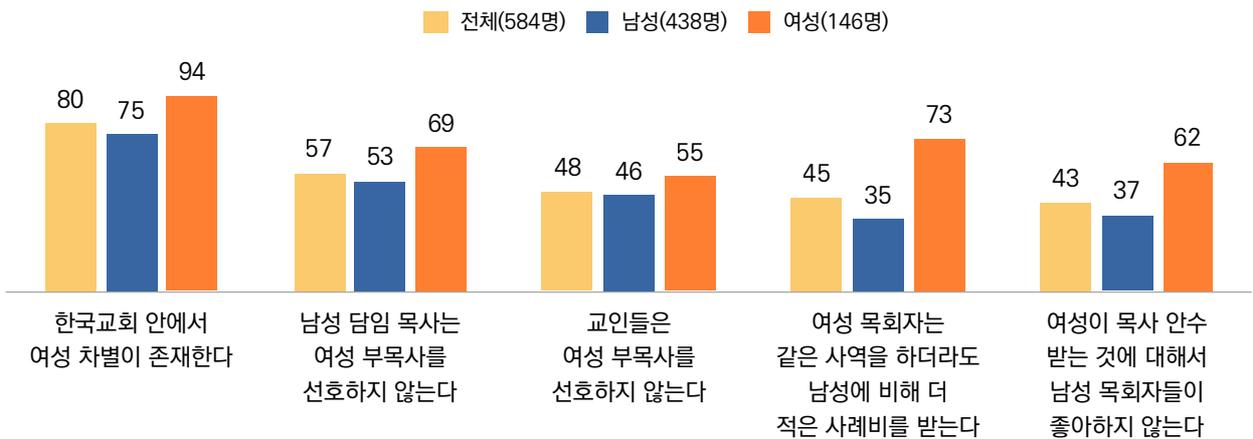
구분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조사 대상	전국의 담임목사	전국의 부목사	전국의 여전도사
표본 규모	총 250명 (유효표본)	총 250명 (유효표본)	총 84명 (유효표본)
표본 추출	유의할당 추출		편의추출
조사 방법	온라인/모바일 조사(이메일 및 카톡을 통해 URL 발송)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담임목사: 교회 규모별 가중치 적용)		
조사 기간	2024년 8월 20일 ~ 8월 23일 (4일간)		
조사/연구 분석	목회데이터연구소		

# 01

## [여성 목회자에 대한 인식] 여성 목회자 94%, '한국교회 내 여성 차별 존재한다!'

- 여성 목회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한 진술문을 제시하고 동의 여부를 물어보았다. '한국교회 안에서 여성 차별이 존재한다'에 대해 목회자 대부분(80%)이 동의했는데, 여성 목회자의 동의율은 94%로 남성 목회자(75%)보다 크게 높아 여성 목회자가 느끼는 차별이 남성 목회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임을 나타냈다.
- 모든 항목에서 여성 목회자가 남성 목회자보다 남녀 차별을 더 인식하고 있었는데, '여성이 목사 안수 받는 것에 대해서 남성 목회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와 '여성 목회자는 같은 사역을 하더라도 남성에 비해 더 적은 사례비를 받는다'는 여성 목회자의 동의율이 남성보다 각각 25%p, 38%p 높게 나타나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여성 목회자에 대한 인식1: 남녀 차별 (목회자, '매우+약간 동의'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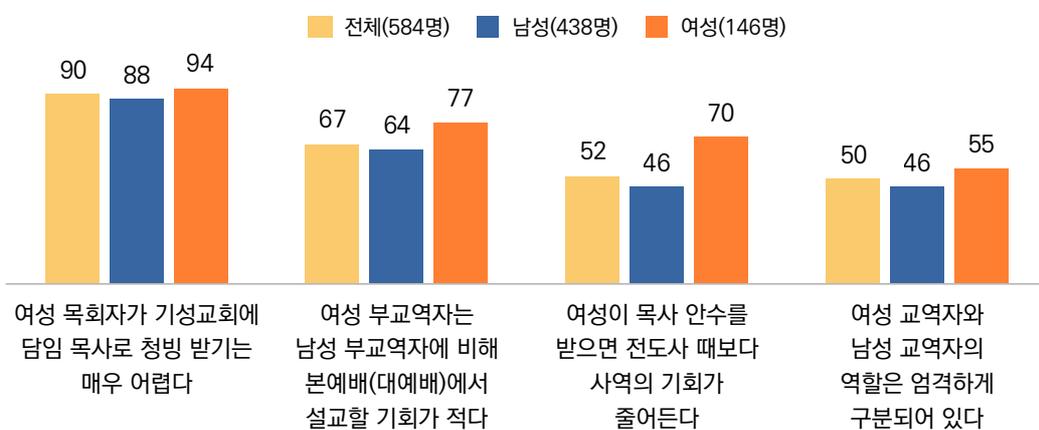


\*4점 척도

## 여성 목회자 10명 중 7명, '여성이 목사 안수받으면 사역 기회 더 줄어든다!'

- 이번에는 여성 목회자의 목회 현실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여성 목회자가 기성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 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목회자 대다수(90%)가 동의했다.
- 응답자의 성별로 비교해 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여성의 동의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목회에서 느끼는 여성 목회자의 어려움을 방증했다. 특히 여성 목회자 10명 중 7명(70%)은 '여성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전도사 때보다 사역의 기회가 줄어든다'에 동의해 주목된다.

[그림] 여성 목회자에 대한 인식2: 목회 현실 (목회자, '매우+약간 동의' 비율\*, %)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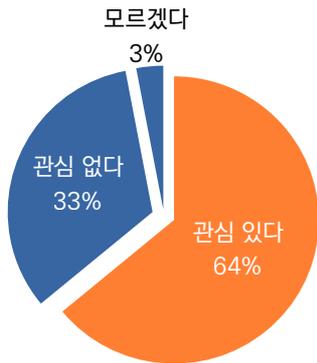
# 02

## [교회 내 양성평등 인식]

### '우리 교회, 양성평등 관심있다', 담임목사 74% vs 부목사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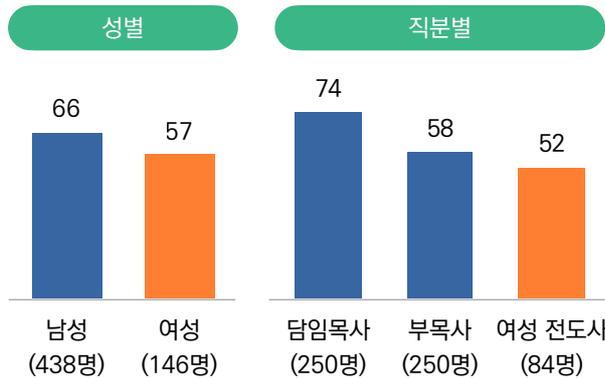
- 목회자들은 시무교회가 어느 정도 양성평등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할까? 목회자 3명 중 2명(64%)정도가 '관심 있다'고 응답했는데 응답자 특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다.
- '시무교회가 양성평등 관심 있다' 비율은 남성 목회자(66%)보다 여성 목회자(57%)가 더 낮았으며, 담임목사(74%)와 부목사(58%)의 응답률 차이는 16%p로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즉 담임목사 4명 중 3명은 시무교회가 양성평등에 관심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목사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림] 시무교회의 양성평등 관심도\* (목회자)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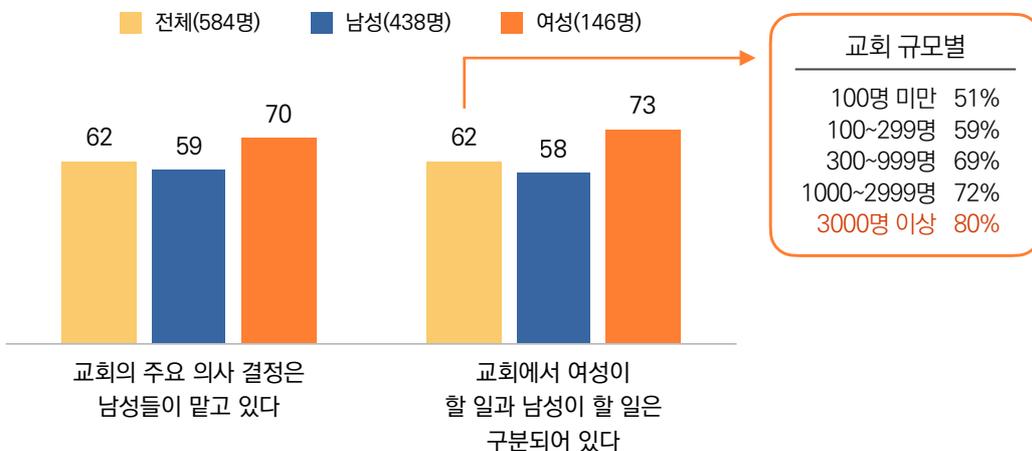
[그림] 응답자 특성별 시무교회의 양성평등 '관심 있다' 비율 (목회자, '매우+약간 관심 있다' 비율\*, %)



## 여성 목회자 70%, '교회의 주요 의사 결정은 남성들이 맡고 있다'

- 교회 내 양성평등에 관한 진술문을 제시하고 시무하고 있는 교회의 실태를 물어본 결과, 목회자 10명 중 6명(62%) 정도가 '교회의 주요 의사 결정은 남성들이 맡고 있다', '교회에서 여성이 할 일과 남성이 할 일은 구분되어 있다'에 동의했다.
- 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여성 목회자의 동의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회에서 여성이 할 일과 남성이 할 일이 구분되어 있다'에 대해서는 여성 목회자 4명 중 3명 가까이(73%)가 동의했고, 교회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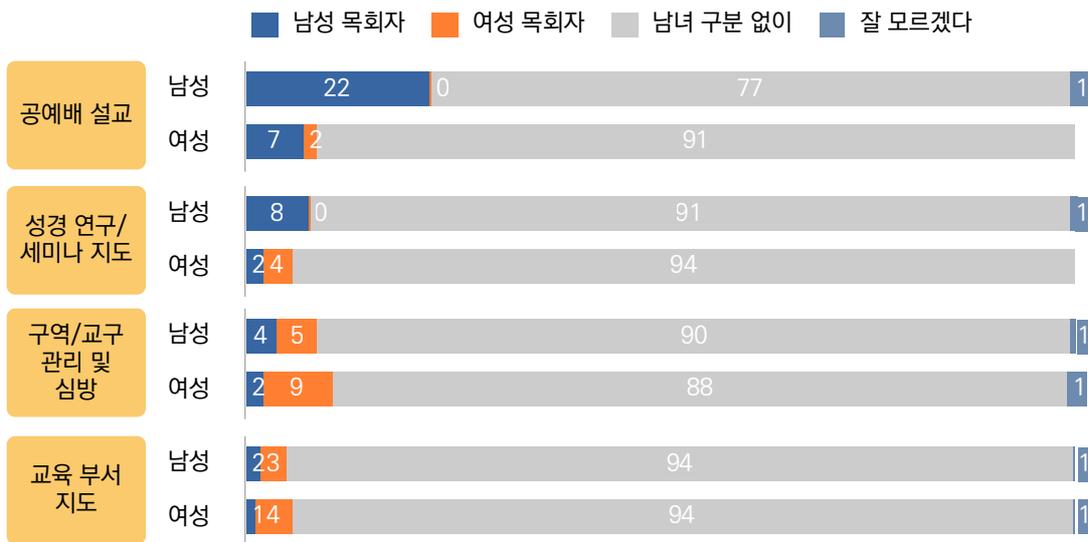
[그림] 시무교회의 양성평등 인식 (목회자, '매우+약간 동의' 비율\*, %)



## ‘공예배 설교는 남성이 적합하다’, 남성 목회자 22% vs 여성 목회자 7%!

- 예배와 교육에 관한 사역의 종류를 제시하고 성별에 따른 사역 수행 적합도를 물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남녀 구분 없이’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크게 높았다.
- ‘남녀 구분 없이’ 응답을 제외하고 남녀 모두 남성 목회자를 더 높게 선택한 항목은 ‘공예배 설교’로 나타났는데(남성 목회자 22%, 여성 목회자 7%), ‘여성 목회자가 공예배 설교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남성 목회자는 0%에 가까웠다.

[그림] 성별에 따른 사역 수행 적합도: 예배 및 교육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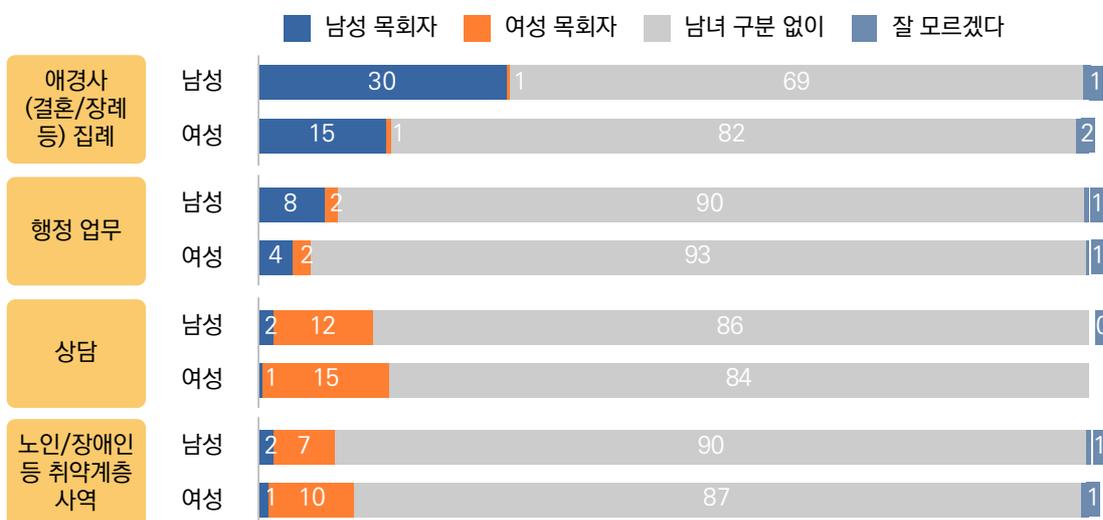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 남성은 ‘애경사 집례/행정 업무’, 여성은 ‘상담’ 사역이 더 적합해!

- 이번에는 행정, 상담, 돌봄, 애경사 관련한 사역에 대한 성별 사역 수행 적합도를 물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남녀 구분 없이’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크게 높았다.
- ‘남녀 구분 없이’ 응답을 제외하고, 여성 목회자가 더 높게 나타난 항목은 ‘상담’과 ‘돌봄(취약 계층 사역)’, 남성 목회자가 더 높게 나타난 항목은 ‘애경사 집례’와 ‘행정’ 사역으로 나타났다.

[그림] 성별에 따른 사역 수행 적합도: 행정 및 기타 사역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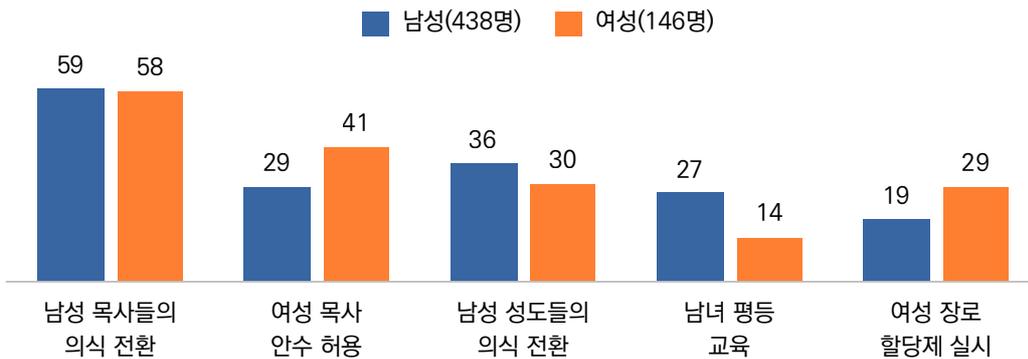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 교회 내 양성평등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남성 목회자의 의식 전환'!

- 교회 양성평등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물어본 결과(1+2순위 기준) '남성 목사들의 의식 전환'(남성 59%, 여성 58%)이 남녀 응답자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 목회자는 '남성 성도들의 의식 전환'(36%), 여성 목회자는 '여성 목사 안수 허용'(41%)를 각각 2위로 꼽았다.
- 특히 남성 목회자는 '남녀 평등 교육'(남성 27%, 여성 14%)을, 여성 목회자는 '여성 목사 안수 허용'(남성 29%, 여성 41%)과 '여성 장로 할당제 실시'(남성 19%, 여성 29%)를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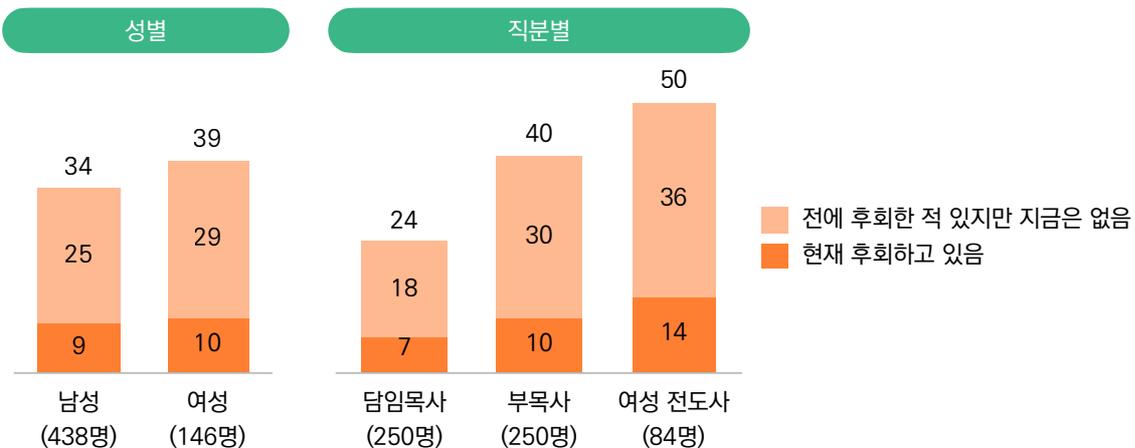
[그림] 교회 내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것 (목회자, 1+2순위, 상위 5위, %)



## 03 [목회 후회 경험] 여성 목회자 39%, 목회자 된 것 후회한 경험 있어!

- 목회자가 된 것을 후회한 경험(전에 후회한 적 있음+현재 후회하고 있음)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그 결과 여성이 39%로 남성(3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 포지션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는데, 담임목사가 24%로 가장 적었으며, 부목사는 40%, 여전도사는 50%로 2명 중 1명이 후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목회자 된 것 후회 경험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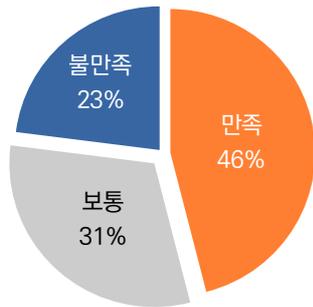
Note) 합이 맞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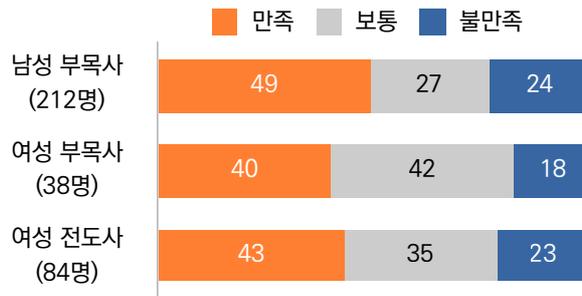
## [부교역자 목회 인식] 여성의 부교역자생활 만족도, 남성보다 낮아!

- 이번에는 부교역자(부목사, 여전도사)의 목회 인식을 살펴본다. 먼저 부교역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만족' 비율은 46%로, '불만족'(23%)보다 2배 높았다.
- 직분과 성별로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여성 부교역자의 만족도는 남성 부교역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림] 부교역자생활 만족도\* (부교역자)



[그림] 직분/성별 부교역자생활 만족도\* (부교역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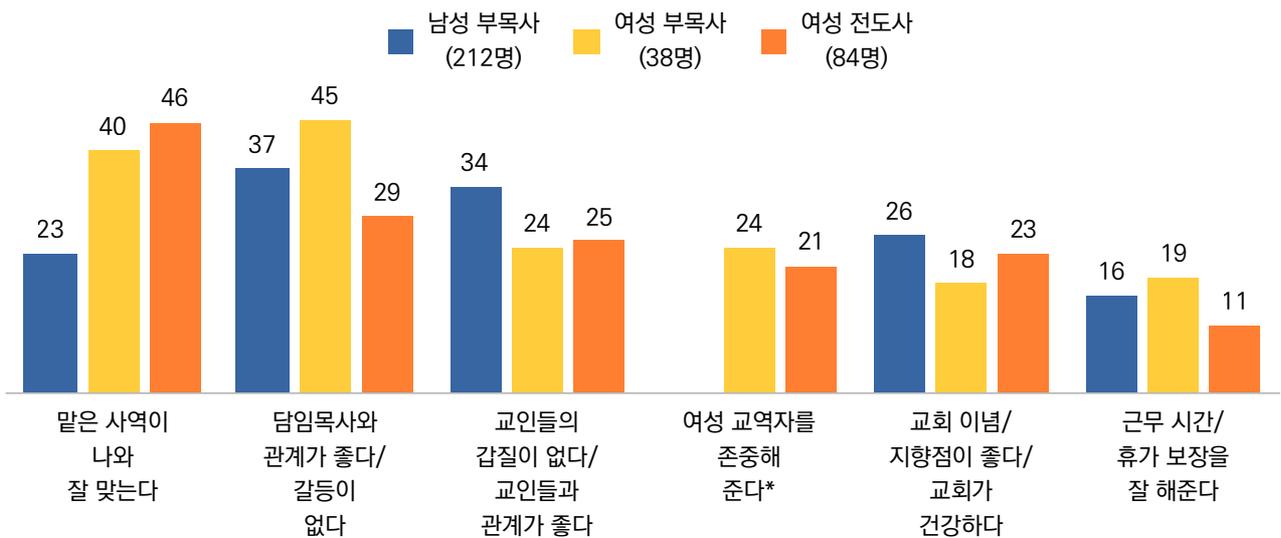
\*5점 척도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 '말은 사역이 나와 잘 맞는다', 여성 부교역자가 남성보다 크게 높아!

- 부교역자 대상으로 부교역자생활 만족 요인을 물어본 결과, 남성 부교역자는 '담임목사와의 관계'(37%), '교인들과의 관계'(34%)를, 여성 부목사는 '담임목사와의 관계'(45%)와 '말은 사역이 나와 잘 맞음'(40%)을, 여성 전도사는 '말은 사역이 나와 잘 맞음'(46%)과 '담임목사와의 관계'(29%)를 가장 높게 꼽았다. 전반적으로 여성은 사역의 적합성 측면에서, 남성은 교인과의 관계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림] 부교역자생활 만족 요인 (부교역자, 1+2순위, 여성 기준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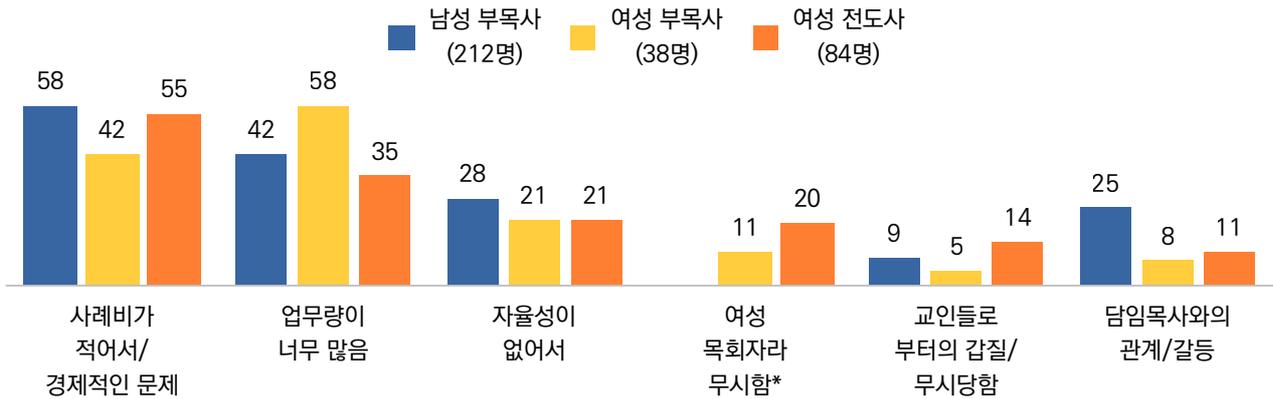
\*여성 응답자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임

Note) '없다' 응답 제외

## 여성 부목사의 힘든 점, '업무량이 너무 많다'!

- 부교역자생활의 힘든 점으로 남성 부목사와 여전도사는 '적은 사례비', '많은 업무량', '자율성 없음' 순으로, 여성 부목사는 '많은 업무량', '적은 사례비', '자율성 없음' 순으로 많이 선택했다. 여성 응답자에게만 제시한 보기인 '여성 목회자라 무시함' 응답은 특히 여전도사의 경우 20%로 5명 중 1명 가량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회안에서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남성과 여성 응답자의 인식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담임목사와의 관계/갈등'(남성 부목사 25%, 여성 부목사 8%, 여성 전도사 11%)이었다.

[그림] 부교역자생활 불만족 요인 (부교역자, 1+2순위, 여성 기준 상위 5위, %)



\*여성 응답자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임  
Note) '없다' 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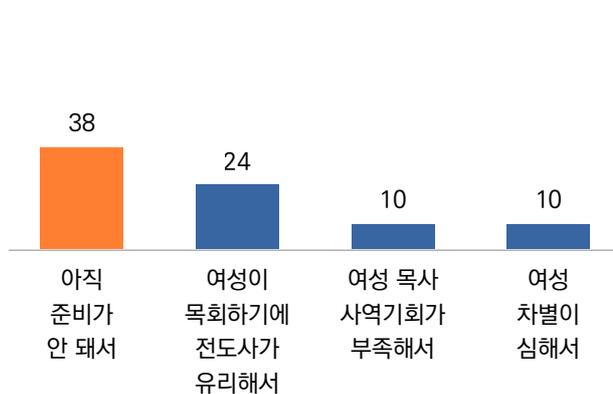
## 05 [여전도사의 목사 안수 인식] 목사안수 받을 계획 없는 이유, '여성목회, 전도사가 유리' 24%

- 여성 안수 문제는 한국교회 내 오랫동안 논쟁의 중심에 있으며 현재에도 진행 중인 이슈이다. 여성 안수가 있는 교단의 여전도사에게 향후 목사 안수 받을 계획을 물어본 결과, 10명 중 6명 정도(58%)만이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회데이터연구소의 2023년 실시한 전도사조사에서 남성 전도사의 목사안수 받을 계획 77%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이다.
- 목사 안수 계획이 없는 여전도사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아직 준비가 안 돼서'(38%)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여성이 목회하기에 전도사가 유리해서'(24%)가 차지했다.

[그림] 목사 안수 받을 계획 '있음' 비율 (%)



[그림] 목사 안수 받을 계획 없는 이유 (목사 안수 계획 없는 여전도사, 상위 4위, %)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트렌드2024 전도사 대상 조사', 2023.06.20. (전국의 전도사 550명, 모바일 조사, 2023.05.12.~05.21.)

\*\*여성 안수 있는 교단 여전도사 대상 질문임

## 이번호 요약

### 1. 목회자 10명 중 8명, '한국교회 내 여성 차별 존재한다'!

- '한국교회 안에서 여성 차별이 존재한다'는 인식에 대해 목회자 대부분(80%)이 동의했으며 여성 목회자의 동의율은 94%로 남성(75%)보다 크게 높았다.
- '여성 목회자가 기성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 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인식에 대해 목회자 대다수(90%)가 동의했으며, '여성이 목사 안수 받으면 사역 기회가 더 줄어든다'에 대해서는 여성 목회자의 70%가 동의해 여성이 목사가 되는게 오히려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 2. 여성 목회자 10명 중 4명, 목회자 된 것 후회한 경험 있어!

- 목회자가 된 것을 후회한 경험(이전에 후회+현재 후회)은 여성 목회자가 39%로 남성(34%)보다 높았으며, 여성 전도사의 후회 경험은 50%로 절반에 해당했다
- 부교역자생활 만족도는 여성 부목사가 40%, 여성 전도사가 43%로, 남성 부목사(49%)보다 낮았다.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영상] 평등을 향한 몸부림 - 여성 안수 (뉴스앤조이)

## 관련 성경 구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28)

## 목회 적용점

한국교회는 여성 교인이 남성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성 목회자와 교단의 여성 총대 비율은 이에 크게 못 미쳐 교단과 교회 내 여성의 리더십 참여가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내 여성 차별이 존재함을 인정했으며, 남성이 인식하는 수준보다 여성 목회자들이 체감하는 차별의 강도가 더 높았다는 점이다. 특히,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여성에게는 오히려 목회 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실은, 일부 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보다 더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회는 먼저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교육을 강화하고, 교회 내 의사결정 구조를 점검해 여성의 참여가 미흡한 영역을 파악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나치게 대립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성별에 따른 강점을 인정하고 적합한 사역을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실제 조사에서도, '남녀 구분 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외하면, '행정'과 '애경사 집례'는 남성이, '상담', '돌봄', '교구 관리'는 여성이 더 적합하다는 응답이 남녀 모두 일치했다. 이는 여성 목회자들이 "맞은 사역이 나와 잘 맞는다"는 점을 부교역자생활의 주요 만족 요인으로 꼽은 결과와도 연결된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남녀의 차이를 불평등의 근거가 아니라 역할의 다양성으로 이해하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는 동역자로 사역할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교회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남녀 모두 '남성 목사들의 의식 전환'을 첫 번째로 꼽았다. 성별에 따른 편견을 버리고, 여성 목회자를 동등한 사역자와 동역자로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응급실 자해·자살 시도자 실태
2. 한국인의 온라인 댓글 인식
3.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대한 인식



## [응급실 자해·자살 시도자 실태] 자해·자살 시도자, 처음으로 4만 6천 명 대 넘어!

- 최근 한 연예인의 자살 사건으로 도를 넘은 비난과 댓글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응급실을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가 46,369명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같은 해 실제 자살자 수를 13,978명으로 집계했는데 이는 2014년 이후 최대 수치이다.

[그림] 자해·자살 시도자, 자살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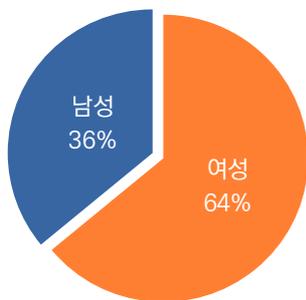


※출처 : 연합뉴스, '응급실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 한해 4만6천명...45%가 '1020' 2025.02.13.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2152100530?input=1195m>)  
 ※출처 : 통계청, 2023 사망원인통계 결과, 2023.1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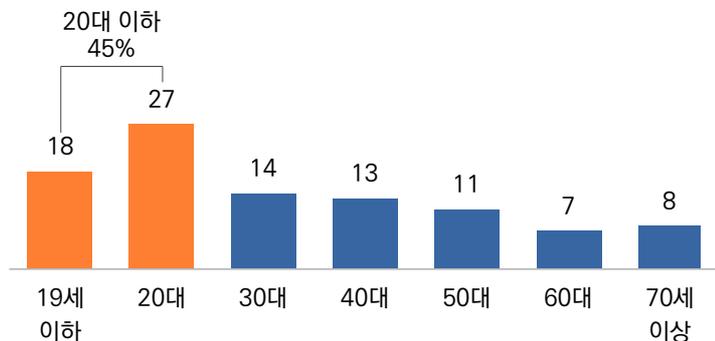
## 자해·자살 시도자의 45%가 20대 이하

- 2023년 기준 자해·자살 시도자의 성별 비중을 보면 여성 대 남성이 2:1 비율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으며, 연령 별로는 20대가 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20대 이하의 자해·자살 시도자는 전체의 45%를 차지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청년층이 많음을 시사한다.

[그림] 성별 자해·자살 시도자 비중 (2023)



[그림] 연령별 자해·자살 시도자 비중 (20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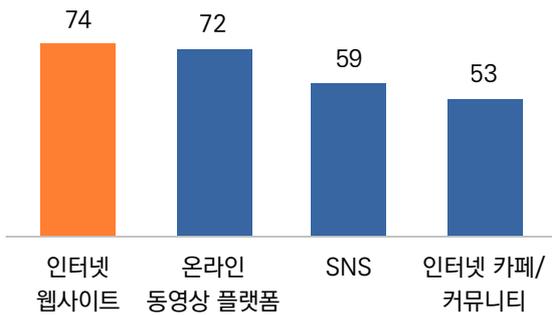
※출처 : 연합뉴스, '응급실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 한해 4만6천명...45%가 '1020' 2025.02.13.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2152100530?input=119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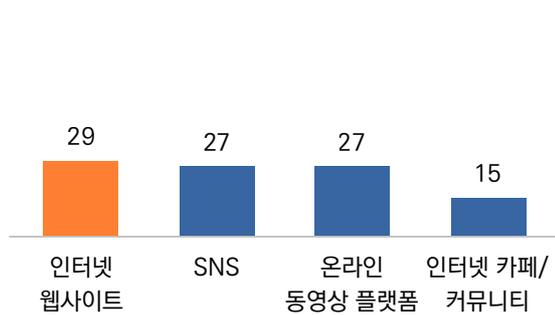
## [한국인의 온라인 댓글 인식] 우리 국민 4명 중 3명, 웹사이트 이용 시 댓글 읽는 편!

- 2019년 10월 25일 가수 겸 배우 설리의 극단적 선택, 2020년 7월 여자 프로배구 고유민 선수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대형 포털은 연예 뉴스와 스포츠 뉴스의 댓글 서비스도 중단했다. 댓글은 타인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익명성을 기댄 악의적인 의도도 있다. 우리 국민은 온라인 댓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인터넷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4명 중 3명(74%)은 댓글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 10명 중 3명(29%)은 댓글을 직접 단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댓글 읽는 경험 (일반 국민, '항상+종종' 읽음 비율\*, %)



[그림] 댓글 작성 경험 (일반 국민, 최근 일주일 기준,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우리 국민의 온라인 댓글에 대한 인식 조사', 2025.02.12.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11.22.~11.25.)

\*모든 보기: 항상 읽는다, 종종 읽는 편이다, 읽지 않는다, 이용하지 않는다

Note) 본 조사는 온라인 패널이라는 온라인 사용자들을 전체 모집단으로 선정해 조사한 것임에 유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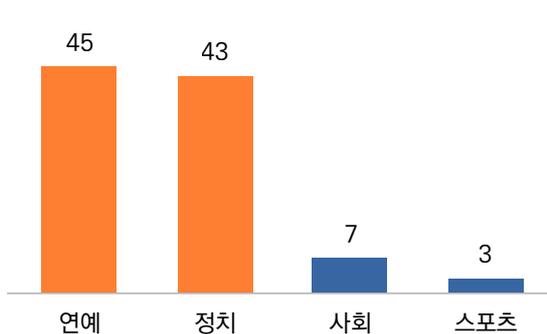
## 악성 댓글 가장 심한 분야, '연예와 정치'!

-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한 심각성을 물어본 결과, 10명 중 9명(89%)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악성 댓글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연예'(45%)와 '정치'(43%)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악성 댓글 인식\* (일반 국민)



[그림] 악성 댓글 가장 심한 분야 (일반 국민, 상위 4위,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우리 국민의 온라인 댓글에 대한 인식 조사', 2025.02.12.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11.22.~1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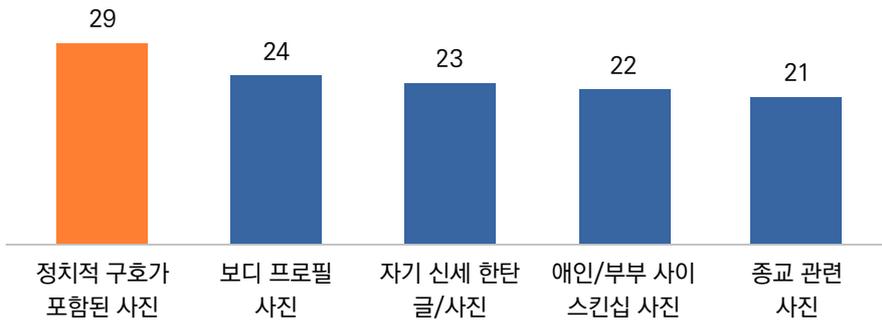
\*4점 척도



##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대한 인식] 직장 동료 프로필 사진 중 불편한 사진, '정치적 신념 드러낸 사진!'

- 사실상 전 국민이 카카오톡을 쓰고, 직장인들이 업무할 때에도 각종 메신저로 소통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메신저의 프로필 사진에 대한 직장인의 인식을 다룬 흥미로운 결과가 있어 살펴본다. 직장 동료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 중 불편한 사진을 물어본 결과 '정치적 구호가 포함된 사진'(2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근 국내 정치 이슈로 이념 논쟁이 심각한데 정치적 색깔이 묻어나는 프로필 사진은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반면, '종교 관련 사진'은 21%로 5위를 차지했다.

[그림] 직장 동료의 불편한 메신저 프로필 사진 (직장인, 중복응답,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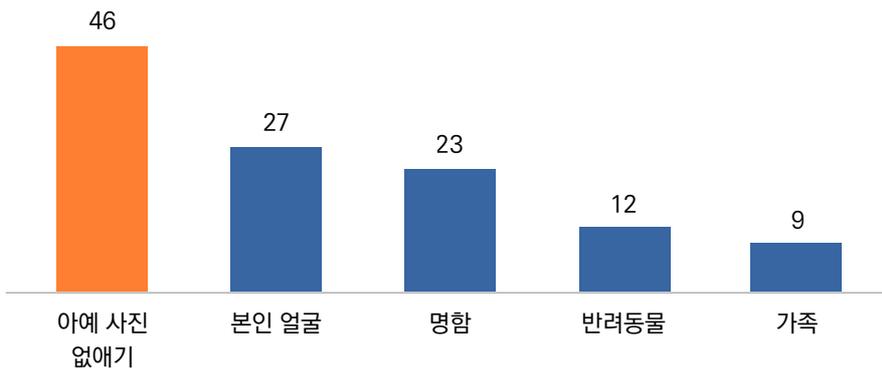


※출처 : 조선일보, "직장 동료의 노출 심한 카톡 프사...누가 좀 말려줘요", 2025.02.13. (20~50대 직장인 1155명, 온라인 조사, 2025.02.07.-02.10.)  
(<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5/02/13/XQZDE6NLQ5GT3K6C3TYQ7V2ASU/>)

## 바람직한 업무용 프로필 사진, '아예 사진 없는 프사!'

- 이번에는 '업무용으로 쓰는 메신저에서 가장 바람직한 프로필 사진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아예 사진을 올리지 않은 메신저 프로필'(46%)이었다. 일하는 상황이나 직장 분위기에 따라 점잖은 프로필 사진을 써야 한다면 업무용과 개인용 프로필을 구분할 '멀티 프로필'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림] 가장 바람직한 업무용 프로필 사진 (직장인, 중복응답, 상위 5위, %)



※출처 : 조선일보, "직장 동료의 노출 심한 카톡 프사...누가 좀 말려줘요", 2025.02.13. (20~50대 직장인 1155명, 온라인 조사, 2025.02.07.-02.10.)  
(<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5/02/13/XQZDE6NLQ5GT3K6C3TYQ7V2ASU/>)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12호 \(2025년 2월 3주\)](#)

-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대선 결과 기대, 대통령 탄핵,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43호 \(2025년 2월 3주\)](#)

- 탄핵에 대한 의견, 탄핵에 대한 의견 변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 신뢰도 등

## 사회 일반

### [한국인 삶의 만족도 4년 만에 하락...OECD 38개국 중 33위](#)

연합뉴스\_2025.2.24.

### ["못 믿겠다" 국민 신뢰도 2년 연속 추락... 2030 불신 더 커](#)

국민일보\_2025.2.25.

### ["통증 없는 죽음이 '좋은 죽음'"...국민 82%, 조력 존엄사 찬성](#)

연합뉴스\_2025.2.23.

### [긴 설 연휴의 그늘...가정폭력 신고 6년래 최다](#)

매일경제\_2025.2.17.

### [슬픈 뉴노멀 ... 10명중 9명 "韓 극단 갈등"](#)

매일경제\_2025.2.20.

### [학부모 10명 중 7명 "AI교과서, 디지털 과의존 문제 발생"](#)

연합뉴스\_2025.2.21.

### [대구 98%·세종 8%...AI교과서 채택 '온도차'](#)

매일경제\_2025.2.20.

### [남성 육아휴직 정착됐다...작년 육아휴직자 전체의 30% 첫 돌파](#)

연합뉴스\_2025.2.23.

## 청년 · 청소년

### [중·고교생 26% 색조화장품 사용...올바른 사용법 안내 필요](#)

연합뉴스\_2025.2.25.

## 노인

###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적절성과 노인 빈곤 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FOCUS\_2025.2.24.

### ["노인 기준? 73세는 돼야 명함 내밀지" ...5060도 맞벌이가 대세](#)

매일경제\_2025.2.24.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경제 · 기업

[국민 55%가 '국장'보다 '미장' 택했다... 5大 이유는](#)

조선일보\_2025.2.24.

[소비심리 얼어붙자 커피·술부터 줄였다... "카페 매출 10% 급감"](#)

중앙일보\_2025.2.17.

[구독경제 전성시대... 2030 '생성형 AI', 4060 '건강·생활가전'](#)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5.2.19.

[중소기업 경영자 10명 중 9명 "트럼프 정책에 대응전략 없어"](#)

연합뉴스\_2025.2.24.

["자기소개서 48.5% 생성형 AI 활용 의심"](#)

연합뉴스\_2025.2.25.

[중견기업 76% "트럼프 2기 한국 경제 불확실성 심화"](#)

한겨레\_2025.2.12.

## 국제 · 환경

[대륙별 잘 나가는 한류는... 아시아·유럽은 K팝·북미는 한식](#)

연합뉴스\_2025.2.25.

[\[2025 대중인식조사\] 중국 이미지와 한중 역량 비교](#)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5.2.19.

## 건강

[잠 못자는 한국... '수면의 질' 57국 중 꼴찌](#)

조선일보\_2025.2.20.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 전자담배도 결국 담배일 뿐](#)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5.2.13.

[30세 이상 성인 절반 '당뇨 전단계'](#)

데이터숨\_2025.2.20.

[유전\(+2%p\)보다 환경\(+17%p\)이 조기사망에 더 큰 영향](#)

데이터숨\_2025.2.25.

## 기독교 · 종교

[꿈쩍않는 한국교회 유리천장... 10명 중 8명 "여성 차별"](#)

국민일보\_2025.2.21.

# 후원

## 후원 교회

경동교회, 곁에있는교회, 고현교회, 구파발교회, 과천교회, 광주금광교회, 광주다일교회, 광주벨엘교회, 광주서남교회, 광주양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남송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도안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산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목민교회, 묘동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범어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상당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영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남제일교회, 수원성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수원화산교회, 순복음강남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앙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세종선한목자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광교회, 영락교회, 영주제일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륜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울산다운공동체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이리신광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장산교회, 조암제일교회, 조양중앙교회, 주가행교회, 주님의 교회,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참사랑교회, 충신교회, 충현교회, 창동염광교회, 창일교회, 풍성교회, 포도원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한밭제일교회, 한소망교회, 할렐루야교회, 함께하는교회, 해전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후원 기관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성서유니온,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한국성서유니온, 한국IFCJ 가정의힘, (재)한빛누리, CBMC광주지식포럼, CBMC여수비즈니스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남촌레저개발(주),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아이온, (주)시스코프, 신대종합모터스,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치움, (주)하츠(주)벽산, 하온커넥터(주) (가나다 순)

##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 후원 방법 (국내)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 > 후원 방법 (해외) <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 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 섬기는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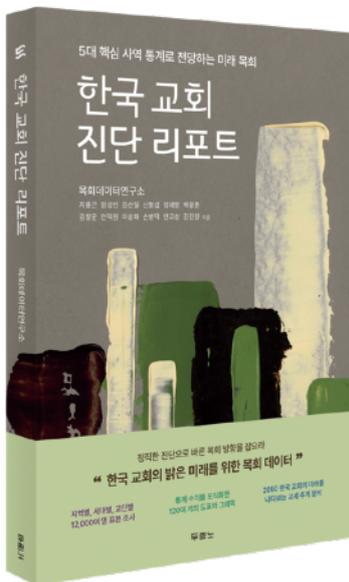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 연구소 소식

목회데이터연구소가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를 출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5대 영역별로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자

지용근, 임성빈, 김선일, 신형섭, 정재영, 백광훈  
김창운, 안덕원, 이상화, 손병덕, 안교성, 김진양

책 구입 안내

<b>Upward</b> 건강한 교회의 맥박 예배	<b>Forward</b> 변화된 삶을 위한 양식 교육	<b>Inward</b> 그리스도의 몸 친교	<b>Outward</b> 예수의 심김 봉사	<b>Onward</b> 지속되어야 할 대위임령 선교
-----------------------------------	--------------------------------------	--------------------------------	--------------------------------	-------------------------------------

# 목회데이터연구소

## 두란노 창립 45주년 기념 세미나

본 연구소와 협력기관인 두란노에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목회 5대 핵심 사역별 통계 자료를 통해 한국 교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를 점검해 보는 세미나입니다.

- 1) 일시 :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13:30~18:00
- 2) 장소 :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
- 3) 대상 : 미래를 준비하는 목회자와 리더
- 4) 참가비 : 25,000원 → 20,000(20%할인)
- 5) 할인가한 : 2025년 3월 13일 목요일까지
- 6) 문의 :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02-2078-3437

\*세미나 등록시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책을 증정합니다.

[세미나 신청하기](#)



## 연구소 소식. 업무 협약(MOU) 체결

우리 연구소는 지난 2월 20일, (주)디엔텍세븐컨설팅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주)디엔텍세븐컨설팅’은 유튜브 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분석, 마케팅,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 간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사역의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디엔텍세븐컨설팅 홈페이지](#)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